

경제

플랜트 설비업체 순천 성장E&C

작년 매출 2933억 전국 1위

최악의 건설경기 불황 속에 지난해 3000억 원에 가까운 실적을 올려 전국 1위를 거머쥔 지역 설비건설업체가 있어 화제다. 순천에 있는 중견 플랜트 설비업체 '성장E&C(주)'다.

22일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 도회에 따르면 순천의 성장E&C(대표이사 김기영)는 지난해 기성실적 29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계설비업종으로 전국 1위로, 지역 업체로는 사상 처음이다.

성장E&C는 2005년 매출액 577억원에서 2006년 108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며 1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07년에는 1387억원, 2008년 1472억원, 2009년 2105억원으로 3년 만에 2000억원대를 달성했다. 이어 1년 만에 800억원의 매출 신장세를 보여며 실적이 2933억원을 기록해 3000억원대를 내다보고 있다.

성장E&C의 이같은 성장 비결은 국내 건설에만 연연하지 않고 해외시장을 공략한 데 있다. 2006년 사우디

아라비아, 2007년 카타르, 2008년 쿠웨이트, 2009년 알제리 법인과 2010년 아랍에미레이트에 지사를 설립, 과감한 도전을 던졌다.

이로 인해 2006년 72억원에 그쳤던 해외공사 매출액은 2006년 255억원으로 1년만에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2008년 72% 성장하며 439억원을, 2009년에는 154% 늘어난 1115억원을 기록하며 국내공사 실적(749억원)을 앞질렀다.

이 회사는 지난 1989년 성장기공(주)으로 설립해 2008년 사명을 성장E&C로 바꿨다. 석유화학 플랜트 제작 및 설비공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등 강구조물 제작 등 기계설비분야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 플랜트업체를 선도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들의 애사심도 한 몫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플랜트 수출 경

기가 위축됐을 때도 이 회사는 단 1명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다. 향후 플랜트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쟁력있는 직원들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오히려 직원 수를 꾸준히 늘려나갔다. 당시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았지만 성장E&C는 처음부터 신입사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 동종 업종의 비슷한 회사 평균 연봉과 비교하면 12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08년 11%, 2009년 12% 등 2년 연속 두자릿수 임금상승을 기록,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같은 공 설립 22년만에 국내의 원자력 및 화학발전·제철·산업주택 설비와 교량 등 강구조물 제작 등 기계설비분야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 플랜트업체를 선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과감한 도전과 실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경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 게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내우외환' 골머리

점유율 1위 中서 리콜...타격 우려

중국 자동차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인 금호타이어가 생산 공정의 문제로 리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한 섭 중국법인 부사장이 전날 중국 중 앙방송인 CCTV의 '소비주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제의 타이어에 대해 리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파했다. 중국에서 타이어에 대한 리콜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 파문은 중국 CCTV가 지난 15일 소비자의 날을 겨냥해 제작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금호타이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CCTV는 "금호타이어 텐진(天津)공장의 타이어 제조시 잔량고무(rework rubber) 사용과 관련해 생산기준이 실제 생산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품에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활용 고무의 사용량을 20% 이내로 한다는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했다는 것이다.

보도 이후 금호타이어는 생산공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텐진공장의

총경리 등 3명을 해임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사내 규정을 어긴 제품 확정 및 기준안을 마련해 자발적 리콜을 국가기관에 신청하고, 중국 내 전 대리점 및 취급점에서 품질에 대한 불만을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질검총국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문제의 타이어를 생산한 텐진공장 가동을 8일째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리콜 파문으로 지난해 시장점유율 16%를 기록하는 등 지난

1994년 중국 진출 이후 줄곧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신뢰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사인 장청자동차(長城汽車) 등 자동차업체들은 여론을 의식한 듯 문제의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금호타이어는 자발적으로 중국 질검총국에 검사를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조는 파업 강행 선언...비난 거세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금호타이어 리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7차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쟁의조정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뒤 조정기간이 만료돼 이날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2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파업 일정과 수위를 확정, 전 조합원과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결의는 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라며 "사측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해 체결한 임단협은 유효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며 "노조의 교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임단협 합의안을 준수하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노사교섭이 아닌 임단협 부가 협의는 노사협의회·고용안정노동공동발전위원회 등 노사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쟁의조정 기간에 대해 지노위는

24일 밤 12시까지라고 못박았다.

지노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1일 오후 6시40분 팩스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은 다음 근무시간부터 처리하기로 돼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정기간은 24일 밤 12시까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25일 전 파업에 들어간다면 조정기간을 지키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전국새농민회 광주시회(회장 박종길)는 22일 농업 광주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제조업 경기 부활 신호?

2월 취업자 414만명...7년래 최대치

감소세에 빠졌던 제조업 일자리 숫자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꾸준히 늘면서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9~2000년 이후 가장 길고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제

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26만2000명) 증가한 414만9000명으로 2월 기준으로 2004년(416만4000명) 이래 가장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384만2000명)보다 30만7000명이,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2월(401만7000명)보다도 13만2000명이

나 증가해 7년 전인 2004년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작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던 과정인 1999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2개월간 증가세가 지속된 이후 최장이다. 지난 1월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84.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년 전인 1991년을 기점으로 추세적 감소에 접어든 제조업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활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연합스

특히 수입산 중에서 일본산이 각각 100%, 69%를 차지하고 있는 생태와 돌(활어)은 14~18일 수입액이 전주(7~11일)보다 30%씩 급감했다. 더구나 지난주말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배된 농작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산 수산·농산물 수입은 더욱 급감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장비의 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달 들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평일의 하루 평균 수입액인 340만 8000달러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방사능 공포' 日 농·수산물 수입 급감

반도체장비도 40% 감소...유화제품은 되레 늘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제품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장비의 수입액도 크게 줄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14일부터 18일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액은 하루 평균 277만6000달러였다. 이는 이달 들어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평일의 하루 평균 수입액인 340만 8000달러에 비해 2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수입산 중에서 일본산이 각각 100%, 69%를 차지하고 있는 생태와 돌(활어)은 14~18일 수입액이 전주(7~11일)보다 30%씩 급감했다. 더구나 지난주말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배된 농작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산 수산·농산물 수입은 더욱 급감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장비의 수입도 크게 줄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입된 일본산 반도체 장비는 2억2000만달러 어치로 작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

다. 반면 일본으로 수출한 석유제품은 3억7000만달러 어치로 작년 동기 대비 161%나 급증했다. /연합스

코스피지수	▲ 2,013.66 (+10.24)
코스닥지수	▲ 507.80 (+1.27)
금리(국고채 3년)	▼ 3.70% (-0.01)
원·달러 환율	▼ 1,120.90원 (-4.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설비건설협 광주전남도회 8대 회장에 이연풍씨

이연풍(58) 해성산업개발(주) 대표이사가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8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취임식은 24일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프라도 관광호텔에서 '2011년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다.

이 신임 회장은 광주살레시오·전남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광주무진로타리클럽 회장, 전남매일신문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광주시민프로 축구단 이사, 살레시오중·고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연에서 배운 건강을 감아 사랑을 위해 드립시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최선의 선택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입니다!

캐나다 원제품 직수입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인공색소 Artificial Dyes 자연에서 배우고 사랑으로 담았습니다.

Natural Factors는 50여년의 역사를 지닌 명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 1 수심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을 갖추고 원재료에서 원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 2 글로벌시장에도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품질확신!
- 3 최첨단 지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이 탄생시킨 보다 고품질, 고가격 건강기능식품!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031) 781.9081(고객지원팀)